

투데이 칼럼

스피치(言語)힘을 믿자

말은 생명을 살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성공을 이끌어 내며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특효약과 같다.

말대로 이루어진다.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처럼 무한한 창조력을 갖고 있다.

성경에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예수처럼 골방에서 깊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니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고 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은 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 나라이고 했다.

생각(셀프대화)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말의 파장이 전자파보다 33배 이상 크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

언어학자들은 똑같은 말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말은 놀라운 각인력, 각인력, 성취력이 존재한다.

피그말리온이란 이름을 가진 그리스 조각가는 어느 날 아름다운 아내상을 조각하고 너무나 아름다워 꽃도 사다 손에 얹어주고 음악도 들려주다 보니 사랑하게 되었고 아프노데에 여신에게 기도도 청원을 하여 그 결과 조각상이 따뜻한 체온과 사람의 숨결을 느끼게 돼 그의 아내가 됐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줌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란 것이 생겼다.



김 양 옥 한국스피치·음변협회 회장

평강공주는 온달보고 항상 장군이 라고 부르니 장군이 되었고 평강공주의 아버지 왕은 그녀가 너무나 잘 울어서 비보 온달에게 시집보내라고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몸도 언어 증추신경이 온 몸을 지배하는데 일본의 에모토 마사무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서 모든 사물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자신을 향해 '사랑한다', '즐겁다'는 말만 해도 몸 안에 좋은 것들로 반응이 나타난다.

태중의 아기를 향해 기도하면 그 아기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기로 태어 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태교교육이다. 이 세상은 사람의 관심보다 심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심상은 마음먹기 달렸기에 자기대화를 꾸준히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 천국가는 길이 '사랑, 감사, 고맙다'라는 말이 있듯이 심상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자.

강원도 정선 가곡리에 '벼주와 헬리스' 표시판이 있다.

거기에는 '헬리스' 도완씨 씨의 3천개가 넘는 장독들이 있다.

이 '도완'씨는 서울대와 독일 유학을 거쳐 잘 나가던 헬리스였다.

그는 편향한데 '감사하다'고 말하고 헬리로 음악을 들려주었다니 맛이 있어 백화점에서 인기 있어 연 매출 60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 성공하였다.

일본의 나케다 씨는 '다마고 보로' 제과로 일본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성공비밀은 소제와 만드는 사람의 행복도를 따지는 사대를 인식하고 사람의 심리적 파동이 물건으로 이동하기 위해 하루에 3천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면서 공장에 '감사합니다'라고 녹음한 테이프를 2시간 틀어놓았다니 성공하였다고 한다.

캐세이는 사업가로, 스피치로 성공한 사업인데 어린 시절부터 나는 부자다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기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세계적인 최고경영자 GE그룹 회장 잭 웰치는 어린 시절 말더듬이었다고 하는데 어느날 친구들이 놀리니까 화

가 나서 어머니에게 친구들이 놀리고 하니 어머니의 말씀이 너는 친구들보다 생각이 속도가 빨라 그렇다는 말을 듣고 잭 웰치는 자신감을 얻고 더 노력하여 세계적인 최고 경영자로 성공하였다.

그러므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이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고통과 역경을 딛고 궁정의 사고로 인생의 성공자 미국의 권(fin) 경영의 전도사 '진수테리(이민자)'가 있다.

1987년 '사커'에 입사하여 혼신의 힘으로 매출을 3배 이상 올려놓으며 주립대에서 경영학석사(MBA)과정도 공부하였으나 승진되지 않고 권고사직 명령이 내려지자 경영자측에서 '당신은 다 좋은데 대화가 안되고 웃음이 없다'는 말을 듣고 변하기 시작하여 과거 생활을 반성하는데 성공하며 만 집착하여 너무 긴장한 생활과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한 것을 바꾸기 시작, 스피치클럽 등에서 학습하여 웃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공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100대 여성기업에 한사람으로 미국 기업들을 경영으로 바꾼 사업이다. 긍정의 사고가 진수테리를 최고 경영자로, 동기부여로 바뀌놓은 것이다.우리가 등한시하고 무의의적인 생활을 하지 말자.

스피치의 능력은 역사적,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고 있으므로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인 스피치학을 열심히 학습해보자. 인생이 더욱 빛나고 성공자가 된다.

물음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관장을 들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은 터널에 들어갔을 때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빨강색 달아오른 저 탱크가 폭발하면 이제 막 걸음마를 떤 내 조카의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뒤로 물러서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소방관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 주위 동료들 역시 같은 선택을 하고 끝까지 관장을 붙들고 있었다. 고행이 되어 가족의 품에서 죽음을 맞을지 아니면 사고 현장에서 맞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죽을 내 죽음이 자랑스러운 죽음이면 좋겠다.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더불어 구조대원으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나는 변함없이 그때와 같은 선택을 하는 소방관이 되길 다짐한다.



최 규 영 남원소방서 소방사

머멘토 모리(memento mori):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얼마 전 원주 순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널브러진 차량들, 겁에 질린 사람들의 표정, 하늘의 절반을 새겨놓은 메운 터널의 연기 그리고 이런 혼란에도 이렇듯 곳까지 않고 하얗게 내리던 울거울 첫 함박눈. 이런 것들이 내가 기억하는 사메터널 사고의 첫 장면들이다. 남원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유례없던 31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남원 소방서에 배치된 지 한 달이 갓 지난 신입 구조대원인 나에게 연쇄 추돌사고는 너무나 무거운 출동지령이었다. 사고지점으로 가는 구조차에 퍼지는 무진 소리는, 단순한 터널 내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직감하기에 흥분했다. 도착해보니 터널은 이미 화재 최성

기를 맞아 검은 연기를 토해내고 있었다. 구조대원은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수색 구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팀원의 절반은 반대 차선 쪽 터널 중앙에 있는 비상구를 이용 진입을 시도했고, 나와 동기는 화재진압을 하면서 진입하기로 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신입 짝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화염과 무관하게 용기를 갖는 게 중요했다. 불길에 휩싸인 한쪽 모퉁이에 빈 공기통들이 쌓여가고 수십 대의 펌프차 물도 다 떨어질 때쯤에서야 불길이 잦아 들었다.

그와 함께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기통을 메고 있던 어깨가 육신거리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었다. 같은 팀 구조대원이 둘러

엮고 나온 할아버지가 팔네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터널 앞에서 아내를 잃은 한 사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터널은 많은 슬픔과 여운을 남긴 채 그렇게 식어졌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했던 현장에 다녀와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보다는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사설

코로나19 침투 계속 경계해야

코로나에 대해 계속 경계해야겠다. 얼마 전에 확진 환자가 세 명이 새로 붙어났기 때문이다.

군산에서 두 사람 전주에서 한 사람이다. 확진 환자 발생 소식 후 긴장했는데 접촉한 조사 대상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관계 당국의 발빠른 대응으로 도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수록 한 게 고맙지만 그래도 경계하고 경계해야겠다. 그것은 놀란 가슴을 슬어내리게 하는 것이었다.

전북도와 관계 당국자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도내 소규모 교회들의 통태에 민감하게 대처했으면 한다. 다들 알고있다고 피 소규모 교회들 중에는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 매주 들어오는 헌금이 아니면 헌상 유지가 어렵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현장 예배 쪽에 강한 유혹을 느끼고 있을 터이다.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데 소규모 교회측의 비협조가 한몫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도내 모든 개신교는 서울과 경기 쪽 교회들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을 두고 심상치 않게 지켜서 안된

다.전북도는 도내의 교회들에게 일요일 예배는 물론이고 다른 집회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당연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현장 예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판소리를 내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거듭 말하지만 은혜의 강 교회나 생명 교회나 생명 섬 교회등 소규모 교회가 보여준 불행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구 한마음 요양병원과 다른 요양 시설이 보여준 행태도 반면 교사의 사례로 삼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 경북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확진 환자가 계속 붙어나고 있을 터이다. 확진 환자가 끝없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될 터인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전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내일의 일이다.

미국을 다녀온 군산 시민이 신규 확진 환자로 드러난 것은 전북도와 방역 당국이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유입도 경계해야 한다는 일깨움을 주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부처

전북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내년에 확정될 정부의 방안에 따라 6개 사업을 선정하고 15조2천억 원을 건의하기 위해 용역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또 다시 하고픈 말이 있다. 전북도는 예산에 여러 번 선언한 게 있다. 동부권 발전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그 성취를 위해서 힘내야겠다.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이 꺼졌다 살아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마땅치 않다. 이제 구체적인 행보로 동부권 발전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전북도는 동부권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지난 십수 년 간 동부권에 대한 발전 관심을 말했지만 그게 그뿐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사업 추진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동안 발전 기대감을 키운 만큼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없다면 동부권의 인구 감소는 계속될 터이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언급할 것이 있다. 주민들은 무슨 사업이고 연속성을 바라보고 있다. 기존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추진해 성과를 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도 이쪽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한다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이참에 도민의 힘을 끌어 올리는 저력을 보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전북도가 수차례 말했던 자존 선언은 아무 쓸 데가 없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의 현실은 낙후 투성이다. 계속 뒤쳐짐이 심화되고 있는데 더 이상은 곤란하다. 전북도는 도내 인구의 감소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전북도는 2백만 도민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셀프 자존심일 뿐이다. 현재 182만 명대 수준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게 팩트이다.

전북도는 국가 철도망 구축 프로젝트에 힘차게 덤벼드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노력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